

완도군, 국비 106억 투입 도서 종합개발사업 추진

선착장·도로 정비, 경관 조성 등 생활 기반 시설 확충... 소규모 어항 개발 군비 57억 원 추가 확보

완도군은 국비 106억 원을 투입, 56개소를 대상으로 '2025 도서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도서 종합개발사업은 도서 지역의 생활 기반 시설 정비·확충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복지를 향상하고자 행안부와 국토부 등 2개 부처가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장기 계속 사업으로 군은 2017년도에 3차 계획을 마무리했고 2018년부터 2027년까지 4차 계획(총 사업비 1,180억 원)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149억 원을 투입, 금일동 백지구 소규모 어항 정비 외 48개소의 사업을 마무리했다.

올해는 국비 106억 원을 투입, 금일동

소량도·월송리와 보길면 예작리·청별 물양장 확장, 노화읍의 북고리·총도리 선착장 정비, 군외면 흑일도 도로 정비 및 LPG 배관망 설치, 청산면의 노을길 경관 조성 등 여서리 등산로 진입로 개설, 모동리 마을 안길 포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숙원을 해결하고 사업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도서 종합개발사업에서 배제되어 추진하지 못했던 소규모 어항 개발과 마을 진입로, 관광지 정비 등 주민 생활 및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군비 57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신우철 군수는 "도서 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수산물의 원활한 생산과 수송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도서 지역을 활력 있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나만의 픽! 화순 여행코스 숏폼 영상 공모전 개최

내 손으로 만드는 핫한 화순 여행 콘텐츠!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4일 화순의 매력을 담은 창의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SNS를 통한 효과적인 관광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나만의 픽! 전남 화순 추천 여행코스 숏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 있는 '숏폼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홍보 전략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특히, 30초에서 1분 이내의 짧고 감각적인 영상을 통해 화순의 대표 여행지를 매력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번 공모전 접수는 4월 18일(금)부터 5월 31일(토)까지 진행되며, 화순 여행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화순으로 떠나고 싶어지는 추천 여행 영상'으로 장르에 개치지 않고 화순의 다양한 관광지를 매력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참가자는 제작한 영상을 본인의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계정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한 후,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총 300만 원의 상금이 걸린 이번 공모전은 심사를 통해 총 13편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대상(1편) 100만 원 ▲



최우수상(2편) 각 50만 원 ▲우수상(3편) 각 20만 원 ▲장려상(8편) 각 5만 원(현금 또는 경품)이다.

조형재 관광체육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개성 있는 시각으로 화순의 관광 명소를 발굴하고, SNS를 통한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많은 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화순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표현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화순/김종환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시는 오는 6월 15일까지 '봄철 집중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동수동 분점과 금천·봉황·문평·남평·공산·노안 분점 등 7개 임대사업소에서 매주 토요일 연장 근무를 시행한다. 특히 모내기철인 5월 17일부터는 본점에 한해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문을 연다.

나주시, 영농철 맞아 농기계 임대 비상근무 체제 가동

운반·세차·안전교육·목재파쇄기 도입까지 현장 밀착 지원

나주시는 124종, 1,523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비 사전 점검 등 영농철 대비 준비를 마쳤다. 농업인은 권역별 사업소에 유선 예약 후 방문하면 필요한 장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장의 어려움에도 세심히 대응하고 있

다. 운반 차량이 없는 농가를 위한 '농기계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며 고장 시 '긴급 출동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세척이 어려운 농기계 관리를 위해 고압 장비를 갖춘 '셀프 세차장'도 전 사업소에 마련돼 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시는 3월부터 10월까지 총 20회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며 기계 조작법과 안전수칙, 응급처치 등 실용적인 정보를 전달한다.

최근 시는 산불 예방과 영농 부산물의 친환경 처리를 위해 1억 3천만 원을 들여 목재파쇄기 10대를 추가 도입했다. 새 장비는 파쇄지원단과 일반 농가 임대에 활용돼 부산물 소각 없는 안전한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나주/이명열 기자

카메라 뉴스



“안전의식 쑥쑥” 담양군, 아동 재난 체험활동 추진

담양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12일 학령기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전북 임실군 전북 119안전체험관을 방문해 다양한 재난 및 응급처치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은 아동들이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응급처치의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들은 재난 종합 체험과 위기 탈출 체험을 통해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안전한 대피 방법을 배웠으며, 전문 응급처치 체험을 통해 심폐소생술(CPR) 및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배웠다.

이번 체험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실제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장흥군, “탐진강 물축제장 주변 위치찾기 쉬워진다”

장흥군이 오는 7월말 열리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 준비와 노벨문학도시장흥 홍보를 위해 탐진강변 도로명을 변경했다. 군은 기존 '탐진강동·서쪽자전거리'를 '물축제길, 노벨문학길'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지난 3월 군민들을 대상으로 예비도로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람 공고를 실시했다. 4월 초에는 도로명 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및 주소사용자의 서면동의를 거쳐 도로명 변경을 완료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축제장 내 촘촘한 위치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방문객들이 현재 위치를 확인하거나, 약속장소를 정하기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도로명주소를 통한 '정남진 장흥 물축제' 및 '노벨문학도시 장흥' 홍보 또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군 제공



진도군보건소,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 운영

진도군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 사업은 진도군보건소 방문보건 전담팀과 강진의료원 인력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의료 취약지역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은 경로당을 방문해 순회진료 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 11월에 진행된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월 1~2회 경로당에 방문해 혈압·혈당 측정, 체지방·심전도·골밀도 검사, 구강검진, 한방진료, 건강상담 등을 통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 합병증 예방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교육과 건강증진사업 홍보(국가암검진, 무릎인공관절·안질환 수술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보건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진도/오재명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